

сахалин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5em;">새고려신문</div>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2019년 11월 1일(금) ..(음력 10월 5일).. Пятница 1 ноября 2019г. № 43(116860)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	---



▲ 11월4일은 러시아에서 국민 단결의 날로 기념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는 이날 전통적으로 시민들의 행진이 펼쳐진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 단신

### 주지사,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새 구역 건설 부지 검토

지난 26일(토) 왈레리 리마렌코주지사를 수행하여 세르게이 나즈사진 시장이 도시 남부 구역을 찾았다. 이 구역에는 총 30만m<sup>2</sup> 면적의 주거단지가 들어설 두 개 구역을 건설할 계획이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주택 문제는 사할린주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은 현대적이고 품질이 향상된 주택을 희망하고 있다. 이 문제의 결정을 지연 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위 알렉산드롭스크 북부 지대를 방문했다. 예전에 군부대 시설이 배치돼 있던 곳으로 이곳 30헥타르는 주 정부와 국방부와의 협약 후에 주택 건설을 위한 건축부지로 이전할 계획이다.

2025년 말까지 사할린과 쿠릴에는 350만m<sup>2</sup>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 기존의 주택 전체 1/3을 최신화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는 43만m<sup>2</sup> 를 건설하고 2021년부터 매해 50만m<sup>2</sup> 이상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주 정부 측이 전했다.

### 사할린주, 20여만 대 차량 등록

10월의 마지막 일요일은 러시아에서 '운전자 날'로 기념한다. 올해 마지막 일요일은 10월 27일이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말에 사할린주에는 각종 등급의 차량 20만3500대가 등록되었다. 이 중 17만6000대는 일반 개인 소유의 차량이며, 2만6700대는 법인 차량, 약 2000대는 여러 형태의 국가 소유물로 등록되어 있으며, 809대가 외국인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다.

사할린에는 승용차 16만2900대가 등록되었고 나머지 차량들은 화물차, 버스 등의 차량들이다.

### 사할린 선수, 국제당수도대회에 성공적으로 출전

지난 10월 19일 대한민국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 당수도 대회 & 세계 한마당에 최초로 러시아 대표로 사할린 선수인 알리 마메도브와 박아르세니가 출전했다. 이들은 경기에서 성공적으로 1등을 차지한 것이 전해졌다.

또한 이 대회 주최자인 국제당수도연맹 남인도 총재가 이번 대회에서 사할린 사범인 안 수학 <오스트로브> 무술센터 관장에게 당수도 8단 증서를 수여했다.



### 국민 단결의 날 축하문 전애하는 여러분!

11월 4일은 우리나라에서 국민 단결의 날로 기념합니다. 이 국경일을 맞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단결했던 중요한 힘이 유지되고 있기에 우리나라는 가장 어려운 과업과 용맹스런 기획들을 실현시키며 여러 장애와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1612년 폴란드의 모스크바 침공 시 쿠즈마 미닌과 드미트리 포자르스키의 지도로 이끌었던 민병대들이 모스크바를 해방시켰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공동체의 힘을 소중히 여기며 사할린주를 비롯한 러시아 전역에서 모두 협력해야만 개선된 삶으로 변혁시켜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단결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과 번영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친애하는 여러분, 명절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왈레리 리마렌코.

### 사할린주 월 평균 임금 11.4% 인상

2019년 1월-9월간 사할린주 사회경제개발의 총결산을 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역 총생산액은 8239억 루블리로 작년 동기간에 비해 2.4% 증가했다.

9개월간 산업 생산액은 7884억 루블리로 작년 동기 대비 102.7%에 해당했다.

응축가스를 포함한 석유 생산량은 1470만 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 가스 생산량은 2018년 대비 4.1% 감소한 227억 m<sup>3</sup> 에 달했다.

2019년 9개월간 사할린주의 석탄 기업의 생산량은 9,900만 톤으로 작년 대비 19.9% 증가했다. 러시아 수산청에 따르면 수산물 어획 및 해산물 채취량은 509,100톤으로 2018년에 비해 92.3%로 이 중 319,400톤이 가공되었는데 2018년에 비하면 85%이다. 올해 이 결산 시기 사할린주에는 전반적으로 산업 생산량이 증가한 가운데 생선 통조림 및 압축 가공 생선, 치즈, 트워록(우유 두부), 육류 반제품 및 식용 내장, 유제품, 버터, 제과 및 마카로니, 건빵, 다이어트 특화 제빵제품, 맥주, 미네랄워터, 무알콜 음료 등에서 증가 수치가 나타났다. 농산업 분야에서는 작년 유사 시기 대비 육류(7.1%) 우유(20.9%) 생산량이 증가했고 올해 결산 시

기의 축산 농장의 마릿수도 12.1% 증가했다. 그중 소의 마릿수는 15.6%, 양계는 4.9%, 계란산업은 8.2% 증가했다.

지상 온실 및 노지 채소의 생산량도 24.4% 증가했다.

2019년 상반기 9개월 건설 분야의 수주량은 2018년 대비 7.8% 증가한 313억 루블리에 달했고, 사할린주에 주택 건축량은 2018년 대비 1.4배 증가한 204,300 m<sup>2</sup> 가 건설되었다. 개인자본이나 대출금으로 건설된 주택은 11만2000 m<sup>2</sup> 였으며, 작년에 비해 1.5배 증가했다. 이는 전체 주택 건설량의 54.8%에 달했다.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8년에 비해 103.73%에 해당했다. 올해 이 시기 소비시장의 도매 거래량은 10.8% 증가했고 일반 식품은 6.1%, 소매 거래량은 3.9% 증가했다. 주민 유료 서비스량도 2.7%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총결 시기에 근로자 1인 월평균 임금은 8만4천 루블리로 2018년 대비 11.4%가 인상되었는데 실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107.4%에 해당했다.

올 9월 말 국립주민고용서비스국에 등록된 실업자 수는 1096명으로 2018년 동기간에 비해 14%(179명)가 감소했다고 사할린주 사회경제개발부가 전했다.

### 새고려신문

### 2020년 상반기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570루블리 90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 알립니다!

새고려신문 다음 호는 11월 15일에 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사 편집부

Следующий номер газеты  
выйдет 15 ноября 2019 г.

# 사할린주 한인협회 결산 및 선거회의 을 12월 14일 개최

## 주한인협회 3/4분기 사업 보고

지난 26일(토)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 한인협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다. 운영위원 27명 중 회의에는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3가지 문제를 살펴보았다. 우선 본회 박순옥 회장이 주한인협회의 3/4분기 사업 보고를 했다.

박 회장은 협회 관계자들이 9월에 치렀던 사할린 주지사 및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두마 의원 등 선거로 많이 바빴다고 밝혔다.

주한인협회는 사할린 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대학(학장 임 엘비라), 사할린주한국어교사협회(회장 코르네예와 인나)와 협력으로 제2회 <장인들의 도시>한민족 문화체험 축제와 7월에 마카로브에서 진행된 <우리는 함께다>민족 간 축제의 일환으로 공동교실들을 성공적으로 펼쳤다. 또한 주한인협회는 사할린국립대에 19명의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사할린주 예산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이는 사할린주지사 왈레리 리마렌코가 사할린 한인사회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바다. 사할린 출신이 아닌 리마렌코 주지사는 주한인협회가 주최하는 광복절 행사에도 참가하고 사할린 한인 사회계 지

도자들과 3번 정도 만났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또한 주지사는 2가지 문제 해결에도 협조했다. 하나는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에서 사할린 한인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 다른 하나는 한인문화센터 옆 <아리랑>소공원 건설 문제를 촉구하는 것이다. 박 회장에 따르면 전시회 같은 경우 향토박물관에서 사할린 한인에 대한 상설전시회를 희망했는데 2개월간 임시 전시만 할 수 있었다. 이는 공간 부족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할린 한인에 관한 일부 전시 물품이라도 상설 전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박순옥 회장이 언급했다. 소공원 문제는 경우, 사실 작업 착수는 내년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 가을로 앞당겨져 지금 한창 작업 중이다.

올해 지방 정부, 지방 한인회와 적극 협력 속에 홀스크와 코르사코브에서 <한 가정에서>민족 간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또한 축제의 일환으로 이 도시들에서 사할린 주 씨름협회(회장 춘 알렉세이)가 주도한 씨름대회도 펼쳐졌다. 협회는 마카로브에서 <우리는 함께다>축제와 유즈노사할린스크 광복절 행사의 일환으로 씨름 대회를 펼쳐 한민족 씨름 보급에도 나섰다. 사할린 한인들에게 주요 사변 중 하나는 8월 초



에 사할린을 다녀간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단(윤상현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총 5명)이 4일 아침 8시에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이다. 이들의 방문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사할린 한인 특별법 관련 현지 의견 직접 청취 및 사할린 동포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8월 9일 호 게재). 그날 저녁에 국회의원들은 사할린 한인사회계 지도자들과 만났는데 그 이후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 제정 촉진을 위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자는 아이디어가 생겼다고 박순옥 회장이 말했다. 처음엔 1인 시위를 9월에 하려다가 여러 사정으로 미뤄져 10월 16일에 마침내 하게 되었다.(자세한 내용은 본지 10월 18호 게재). 이 일로 박순옥 회장과 함께 김홍지 주한인

협회 고문, 김웨철 주한인 여성회 회장이 방한했다. <60+>클럽 회원들도 한인문화센터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주로 동포 2세대들이 이들은 한인사회와 한민족 문화역사 등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모임은 주로 사할린국립대 교수들의 문화역사에 대한 강연, 한인회 관계자들의 동포에 대한 최신 뉴스로 시작한다.

한인협회의 주요 사업 중 하나는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사업이다. 사할린 동포 사회 측에서 이 사업은 장기간 김홍지 주한인협회 고문이 맡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10월 5일에는 제 7차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유해 추도·환송식이 진행되었다.(자세한 내용은 본지 10월 11일 호)

2016년부터 한국 정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추무진)을 통해

2016년부터 사할린 동포 1세 한국 초청진료사업을 해오고 있다. 올해는 두 차례 걸쳐 1세 어르신 13명이 부산에 위치한 정선의료재단 온종합병원에서 정밀검진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 계획은 30명이었는데 1세분들이 연세도 많고 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한국에서의 진료를 거절하는 경우가 늘었다. 지난 9월 24-27일에 사할린을 다녀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표단은 이 문제를 주한인협회와 협상해 1세 어르신들을 위해 사할린에서 <치매 예방> 기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순옥 회장에 따르면 현재 협회가 갖고 있는 1세 명단에는 530명이 기록돼 있는데 그중 57명은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했다가 여러 사정으로 다시 사할린으로 영구 귀국한 어르신들이다. 주 중앙도시와 중앙도시 부근에 거주하는 1세 동포들은 먼 지방 한인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우선 먼 지방 한인들을 찾아 <치매 예방>기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올해 내 지방 3-4곳을 찾아 1세 어르신들과 의료진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선물로 쌀 1포씩 드리고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올해 8월에 사할린 청소년 역사캠프도 지속적으로 개최되었고 이

사업을 주한인협회 청년부(회장 이 세르게이)가 도맡았다. 사업이 잘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박 회장이 전했다. 올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청년부 대표들은 한민족 청년활동과 관련된 포럼 두 곳을 다녀온 후 사할린에서도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사할린주 정부가 협조할 예정이라고 박순옥 회장이 강조했다.

박순옥 회장은 1인 시위 진행 사항도 이야기했다. 사실 1인 시위 문제는 회의 의정의 2번째 문제였다. 이에 대해서는 김홍지 주한인회 회장의 보고가 있었는데 그는 사할린 한인 역사, 사할린 한인들의 요구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하고 물론 1인 시위 과정과 소감을 표명했다. 김웨철 주여성회 회장도 1인 시위 참가 소감을 이야기했다.

3번째 문제는 사할린주 한인협회 결산선거 대표자회의 소집 문제였다. 이에 대해 오진하 운영위원이 발표했다. 그는 대표 선발 절차 등을 이야기하고 주한인협회 회장 임기가 3년이며 결산 선거 대표자회의는 12월에 소집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지방한인회들은 대표들을 11월 26일까지 선발해야 하고 사할린주한인협회 결산선거회의는 12월 14일 소집하기로 했다.

(배순신 기자)

## 이 모 저 모

### 사할린 국립 대학교 개방의 날 개최

사할린 국립대학은 11월 2일 '대학 개방의 날'을 개최한다. 이날 장래 입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을 방문하여 대학으로서 전문대학들, 단과대학들을 알아볼 수 있다. 대학 설명회에서는 2020년 특례 입학과 교과과정 구성에 대해 소개한다. 입학위원회 대표들에게는 러시아 대학 입학 요강에 따른 여러 관심이 가는 질문들을 할 수 있다.

'대학 개방의 날'은 학교, 전문대, 단과대 졸업생만 아니라 2차 고등교육의 석사, 박사과정의 입학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진행할 계획이다. 입학 설명회에서는 예게에(수학능력시험) 준비과정도 알아볼 수 있다고 사할린 국립대 홍보실이 전했다.

이 행사는 사할린 국립대 행정관(코무니체스키 프로스펙트, 33)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전화 : 8 (4242) 45-23-80.

### СахГУ проведет день открытых дверей

2 ноября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проведёт день открытых дверей.

Будущие абитуриенты и их родители смогу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институтами и колледжами, входящими в состав университета. На презентации расскажут об организации уч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особенностях поступления в университет в 2020 году, а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приёмной комиссии можно будет задать любые интересующие вопросы по предстоящей приёмной кампании в вузах России.

День открытых дверей ориентирован не только на выпускников школ, колледжей и техникумов, но также и на лиц, желающих получить второе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

ние, пройти обучение в магистратуре или аспирантуре. Также на презентации мож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урсами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ЕГЭ,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ГУ.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йдет в актовом зал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корпуса СахГУ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оспект, 33).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 (4242) 45-23-80.

### 음유시인 허 로만 시인의 70돌 기념식에 사할린 주민들 초대

음유시인이자 번역가이며 러시아 작가동맹의 회원인 허 로만 시인 70회 생일 기념 <노타 라>문학의 밤이 11월 8일 17시30분에 사할린 일반과학 도서관에서 열린다.

행사 참석자들은 작가의 창작 프로그램과 최근 출간된 시와 번역 작품집이 소개된다. 이 문집 출간으로 2018년 초 모스크바에서 다음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다음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 전시회 중 하나인 <제 25회 서울 국제 도서박람회>에서도 소개되었다. <자유 마이크>의 시간에 참석자들은 그의 작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나누고 작가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다.

허 로만 시인과의 예술적 만남은 작가와 예술적 만남만 아니라 한국의 시와 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음유시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눌 멋진 기회이기도 하다.

이 행사는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도서관 측에 따르면 입장료는 무료이다. 문의전화 : 8(4242)45-25-02

### Отметить 70-летие островного барда и поэта Романа Хе приглашают сахалинцев

Творческий вечер «Нота Ля», посвящённый 70-летию поэта, барда и переводчика, члена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Романа Хе состоит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8 ноября в 17:30.

Участники вечера познакомятся с творческой программой автора и его последним сборником стихов и переводов, презентация которого состоялась в 2018 году сначала в Москве, а пото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дальнейшем издание было представлено на одной из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книжных выставок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XXV Сеульск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нижная ярмарка». Слушатели смогут задать писателю вопросы, а также поделиться своими мыслями о его творчестве в рамках свободного микрофона.

Творческая встреча с Романом Хе — прекрасный повод поговорить о лирической поэзии и больше узнать не только о творчестве самого писателя, но и о корейской поэзии и культур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ится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СахОУНБ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Вход свободный, сообщает библиотек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4242)45-25-02.

### 예술전문대학교 학생들, 사할린 어린이들에게 재즈음악을 소개

11월2일 15시 사할린 예술전문대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클래식>기획의 음악교육 일환으로 <어린이들에게 재즈>상호작용 콘서트가 조성된다. 이 프로그램은 6세 이상 어린이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입장은 자유다.

가벼운 놀이방식으로 아동들은 악기의 이름을 알고 재즈 리듬의 특징에 관심을 기울이며 경연과 음악 퀴즈에 참가할 수도 있다. 아이들은 박자에 맞춰 손뼉을 치면서 '신코파(강조 시 강한 박자에서 약한 박자로의 변화)'가 뭘지 배우게 될 것이다. 콘서트에서 아이들은 발을 구르고 박수를 치며, 춤을 추고, 소리를 내며 시끄럽게도 하고, 질문도 할 수 있다. 합동 즉흥 연주나 노래 또한 없을리 없다.

(8면에 계속)

책 소개

# 《사할린 잔류자들: 국가가 잊은 존재들의 삶의 기록》

현무암, 파이차체 스페틀라나 지음, 고토 하루키 사진 | 서재길 옮김

### (전호의 계속)

#### 5장 어머니의 망향의 염원을 안고 살아 가는 딸 (136쪽)

학교에서 돌아오니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아키코짱, 여기 앉아봐." 어머니는 '소자'라 부르지 않았고 새삼스럽게 일본어로 말했다. 어머니는 아키코가 일본어를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려 했던 것이리라. 아키코는 "갑자기 일본어로 말하니가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라며 늘하던 대로 한국어로 대답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한국어로 "일본에 가려면 일본어를 공부해야 하고, 아버지는 일본에 같이 못 가"라고 말하는 것이다. 어머니와 아키코 두 사람만 일본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어머니는 "일본에 가면 재산도 있으니 행복해질 수 있어. 다른 아이들은 두고 가니까 함께 돌아가자"라며 아키코의 답변을 들으려 했다. 어린 아키코에게는 가혹한 선택이었다.

#### 6장 사할린, 홋카이도, 인천을 오가다 (170쪽)

일본, 한국, 러시아 세 나라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지마와 이라의 멘탈리티에는 경계가 없다. 그들은 언젠가는 일본이나 한국에서 생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마에게는 일본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고 이라의 부모님은 일본에 있다. 다만 둘이서 양쪽 부모님을 모두 방문하면서부터는 한국의 생활 방식이 러시아와 가깝다고 차츰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뿐,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것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러시아인이라는 의식이 각인되어 있다.

사할린 잔류자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귀국 정책의 차이 때문에 사할린의 일본인과 한국인 가족이 러시아, 일본, 한국에 흩어져 살게 되는 것도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그 속에는 이들이 각국의 귀국 제도를 활용하면서 구축해놓은 세 나라에 걸쳐 있는 '트랜스내셔널'한 생활공간이 있다.

#### 7장 한국에 '영주 귀국'한 일본인 여성 (184쪽)

보배는 의붓아버지가 전라남도 완도에 처자를 남겨두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완도를 박차고 일본으로 온 것은 좀 더 넓은 세계에 대한 동경 때문이었다. 이후 사할린으로 건너온 뒤 전쟁이 끝나고서도 잔류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자 차츰 고향을 그리워했다.

1985년 어느 날 한국의 KBS 라디오의 '이산가족 찾기' 방송에서 완도의 의붓아버지 가족이 아버지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때 보배는 의붓아버지에게 한국에 연락을 해보라고 재촉했다. 의붓아버지는 "고향에 있는 자식들에게 연필 한 자루 사주지 못했다"며 어느 것 하나 아버지 역할을 한 게 없다는 사실에 책임을 느끼고 완도의 가족과 연락하려 들지 않았다.

#### 8장 도마리의 흙이 되다 (203~204쪽)

도마리에는 조선학교가 있었지만 아이들은 모두 러시아학교에 다니게 했다. 1958년이 되자 소련 당국은 조선인에게 소련 국적 취득을 촉구했다. 나훗카의 북조선 영사관이 사할린 잔류 조선인을 자국의 공민으로 만들기 위해 한 선전활동에 대한 대응 조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그때까지는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국으로 귀환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여 소련 국적 취득에는 신중했지만, 요시 부부는 망설임이 없었다.

당시에 요시 부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함께 이 땅에서, 언제까지나 함께 살자고 서로 맹세했다. 1957~1959년까지의 후기 집단귀환에서 대부분의 일본인 여성이 조선인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에 귀환할 때도 요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 9장 친아버지와 친어머니를 끌어안고 싶다 (224~225쪽)

기젠의 아버지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있는 동급생에게 아들의 소식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기젠이 태어난 마카로프까지 가서 기젠의 양외할머니도 만났다. 그러나 기젠의 친부모가 아이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외할머니는 살고 있는 곳을 알려달라는 그의 요청을 완강하게 거부했다. 시청을 찾아가 기젠이 코르사코브에 있다는 것을 밝혀낸 후에야 가까스로 그를 찾아낼 수 있었다.

"왜 좀 더 일찍 오지 않으셨어요?" 기젠은 분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아버지의 친구는 기젠이 연락을 하면 아버지가 만나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엔도 부부는 곧바로 아직 어린 두 아이가 함께 있는 가족사진을 찍어 그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이 오지 않았다. 기젠은 매일같이 아버지의 편지가 도착하지 않았는지 아내에게 물었다.

#### 10장 나의 '고향'은 사할린 (245쪽)

요시코가 북조선에 있는 동안 사할린에도 시각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생겼다. 다양한 상품의 포장 상자를 만드는 공장이었다. 공장에서 일하려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에서 러시아어나 러시아어 점자, 요리법과 재봉 등을 배워서 자격을 얻어야만 했다. 이를 위해 요시코는 1967년에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의 비이스크에서 공부했다. 그때부터 레나라는 이름을 썼다. 4개월간의 연수를 마치고 무사히 자격증을 취득한 뒤 사할린으로 돌아왔다.

사할린의 공장에서 요시코는 39년간 일했다. "나는 늘 정확하게 일했어요. 지금은 연금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어요.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빵을 먹지는 않아요." 지금은 연금생활을 하고 있지만, 장애를 안고서도 자립할 수 있었다는 것이 요시코의 자랑이다. 자립할 수 있게 해준 러시아에도 감사하고 있다.

#### ▶출판사 서평

#### 사할린 잔류자들, 그들이 개척해나간 주체적 삶에 대한 기록

'가라후토'라고 불리던 사할린 남쪽 지역은 한때 일본의 통치 하에 있었고, 1945년 일본의 패전 후엔 소련의 영토로 편입된 곳으로써 제국주의가 각축을 벌이던 곳이었다. 일본 통치 시기에 본국의 자원 근거지 역할을 맡은 이 지역에 많은 일본인과 조선인이 투입되어 생활하고 있었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그들 대다수는 각국의 안일한 태도와 얽힌 이해관계 등의 문제로 인해 고국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사할린에 '잔류'해야만 했다. 국가에 의해 지워지고 잊힌 존재가 되어, 머나먼 타지에 남겨진 '잔류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역사적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의연하게 삶을 이어나갔다. 당시 사할린에 잔류해야 했던 사람들과 그들이 이룬 가족은 오랜 시간 세대를 이어나가며, 국가라는 개념에 귀속되지 않는 그들만의 삶의 방식을 스스로 찾아나갔다.

(다음호에 계속)  
(출처: 책과 함께 신간)

##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문자 메시지에 대하여 / 윤석정

빛의 속도로 너에게로 달려가는 전파가 지구를 헤멘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너에게로 보낸 문자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속도는 파장이 헤멘 시간과 비례한다. 사랑이란 돌에 새긴 최초의 문자보다 사뭇 지우기 쉬운 문자 메시지 우리가 문자로 사랑을 하기엔 너무나 가벼워 0과 1로 전부 표현하기 네가 그리워 가만, 화성인의 수신기에 접속을 시도하려는 수백만 헤르츠 전파가 우주의 극점에 닿지 못하고 블랙홀에서 길을 잃는다. 더러는 헤쳐 심해어의 부레에서 오리무중이 된다. 양철 지붕을 툭툭 쳐대는 빗줄기처럼 한사코 버림받은 나에게로 넘쳐 버린다.

"문명은 진화했지만 소통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SNS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어플도 저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 어플을 깔아본 적이 없으니 사용법조차 모릅니다. 전혀요. 이유는 역시 간단합니다. 너무 편한 게 싫어서요. 너무 쉽게 짤막한 메시지, 느낌들을 주고 받는 게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목소리를 들어가며 나누는 통화를 선호합니다. 딱 뻘뻘한 인간이 아닐까 종종 생각에 잠깁니다. 뻘뻘이 울리면 공중 전화를 찾아 다니던 예전 기억이 좋았거든요. 사실 뻘뻘 역시 0과 1의 단순한 메커니즘을 축으로 만들어진 문명의 도구일 뿐인데. 지난해 이맘쯤 유즈노사할린스크 레닌 광장에서 제 눈에 띈 러시아 젊은이들의 통화 모습 역시 인상깊었습니다. 위키토키라고 옛날 무전기를 쓰듯이요. 세상에! 스피커폰에 입을 댄 채 몇 마디 말을 내뱉고 전송한 뒤,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온 음성 메시지를 듣습니다. 물론 걸으며. 이게 무한반복. 이렇게 이용하면 요금제가 저렴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님 폰을 계속 귀에 대고 있기도 귀찮아서 그런 걸까요?"



서울에서 허진원.  
2019.10.09

## 2019부산국제어린이미술대전 은상 사할린 학생 남 울리야가 따내

지난주 뉴스부산(newsbusan.com)이 주최하고, 부산국제어린이미술대전운영위원회와 마음꽃감성발달연구소가 주관하는 '2019 부산국제어린이미술대전 (Busan International Children's Art Contest, BICAC2019)'의 수상자 발표가 있었는데 남 울리야(13세) 사할린주 홈스크시 학생이 수상했다고 전해졌다. 이 학생의 그림은 "숲과 자연이 아름다운 우리 도시"란 제목으로 은상을 따냈다.



그외 홈스크 학생인 쿠드랴브제바 발레리아와 주 콘스탄틴이 부산어린이미술대전 특선을 수상했다고 전해졌다.

이 학생 3명은 홈스크시 <마천> 한글학교 학생들이다. 부산미술대전에는 본 학교 이진선 선생의 추천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이진선 한글교사는 "공모가 거의 끝날 무렵 참가하게 되었는데 큰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9부산국제어린이미술대전운영위원장인 천영희 교수는 "아동 미술 표현 발달단계를 고려한 가운데, 아동의 관점에서 '자유로운 사고와 상상력, 창의적 예술성 등 자기표현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미술대전 주최 측은 수상작에 대한 전시는 11월 지상전시(한새뮤지엄 예정)할 예정이며, 별도의 시상식 없이 이날 각 수상자에게는 참가 주소지로 상장을 발송한다고 전했다.

(본사 기자)

##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한국 저가 항공사 기다린다

2020년 말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은 항공사와 항공편의 범위를 확대하길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공항에서 지속적인 인력 양성, 수용 가능한 항공편 목록 확대, 새로운 항공사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가을, 공항 측은 항공사 노르드윈드와 계약하여 엠브래어(Embraer) 190호 항공기를 하바투스크로 첫 운항할 예정이다. 또한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측은 앞으로 한국의 저가 항공사들을 비롯한 아시아 항공사들 유치에 전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러 항공사들과의 협상이 있었고, 한국 저가 항공사들은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 편에 전망을 분석하는 중이다. 아시아나 항공이 떠난 후 유일하게 한국 직항을 하게 된 <아브로라>항공의 운항을 주시하고 있다. 저가 항공사들에게는 가격의 플러스, 마이너스 5%로 항공편 운항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올해 여객 수송률은 11% 증가해 여러 극동 지역보다 좀 높은 편이다."라고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공사 니키타 폴론스키 사장이 밝혔다.

공항 측은 새 공항 여객터미널 준공(2020년 11월 예정)을 시점으로 기타 모든 서비스들로 여객 수송률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Сахалинцы успешно выступил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турнире по тансудо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урнир по тансудо состоялся в Южной Корее. Впервые его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ли россий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Страну представили сахалинцы Али Мамедов и Арсений Пак. Они оправдали надежды тренеров, здорово выступили и заняли 1 места. В составе делегации были тренеры Романов Виктор, Буторин Алексей, Ан Сухаги.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президент Всемирной федерации Тансудо г-н Нам Ин До торжественно вручил сертификат 8 дана (черный пояс) директору Центра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Остров» Ан Сухаги.

Как уже сообщалось, на Сахалине намерены развивать тансудо, который считается прародителем тхэквондо.

(Наш корр.)

## Знания из сундуков

Иностранные студенты из Пуса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а также ребята из Харбина (Китай) и Тибы (Япония), изучающие сегодня в СахГУ русский язык, литературу и страноведение, посетили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Знакомство с новой выставкой музея «Мы открыли сундуки...» стало практической иллюстрацией тех теоретических знаний, которые иностранцы уже получили на аудиторных занятиях.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сотрудниками музея произведения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екстиля – традиционные женские и мужские костюмы, головные уборы, разноцветные платки, кружевные ткани и оригинальные вышивки – составляют важную часть русской народной культуры.



Упоминания о том, каким в древности было отношение к костюму можно найти в произведениях русских поэтов и писателей. В одной из пушкинских поэм звучат такие стихи: «Лазурный пышный сарафан / Одел Людмилы стройный стан...». Иностранным студентам, впервые приехавшим в Россию, визуальные знания из «сундука» помогают не только лучше понять русскую классику, но и ввести в свой речевой обиход как устаревшие, так и специальные слова, связанные с историей костюма: понёва, душегрея, епанча, завеска, запон и другие.

Вот какие отзывы о первом знакомстве с экспонатами выставки оставили две корейские студентки. Девушки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изучают русский язык.

Ким Чхэ Ри: «Прежде я никогда не видела традиционную русскую одежду. Но с первого взгляда подумала, что это очень красиво. Особенно мне понравилась вышивка на ткани».

Мун Вон Ён: «Русские платья такие красивые! Они похожи на модную одежду в Корее. Мне бы хотелось примерить такое платье».

Экскурсию по выставке «Мы открыли сундуки...» для студентов и их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провел старш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науч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го от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Сергей Хе. Работа выставки продлится до 10 ноября 2019 года.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профессор СахГУ  
На фото (слева направо): Ким Чхэ Ри (Пусан), Мун Вон Ён (Пусан), Цзя Янань (Харбин)

### Новости диаспоры

## Отчетно-выбор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РООСК состоится 14 декабря

26 октября, в минувшую субботу, в Сахалинском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состоялось очередное заседание правления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где были рассмотрены следующие вопросы: отчет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РООСК за 3 квартал текущего года, вопрос по Спецзакону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опрос о созыве отчетно-выбор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РООСК.

С отчетом по первому вопросу выступила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За отчетный период РООСК участвовала как один из организаторов в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фестивалях «Мы вместе» (Макаров), «В семье единой» (Холмск и Корсаков), провела Праздник дружбы, посвященный Освобождению Кореи,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организовала исторический молодежный лагерь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ООСК, совместно с медицинским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м Фонд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одолжает работу по диагностике и лечению в РК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1-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этом году по этой программе в Пусан отправились 13 человек при квоте 30.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в силу возраста и здоровья, все чаще отказывается от поездки в Корею, поэтому было решено параллельно с этим проектом выбрать новый формат. Было решено провести мероприятия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1-го поколения на местах, без выезда в РК.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будут охватывать районы, отдаленные от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ак Сун Ок отметила хорошую работу молодежного отдела РООСК (председатель Ли Сергей) и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сирым (президент Чун Алексей).

Один из самых важных вопросов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 это продвижение принятия Спец-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парламент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4 августа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де собралось более 200 человек,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с депутатами парламента РК, членами комитета по внешним связям и воссоединению. Одна из целей поездки депутатов на Сахалин – встреча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возможность услышать чаяни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из их уст, услышать мнения по Спецзакону. Сахалинцы требовали ускорить принятие Закона, ведь спецзакон в различных вариациях не раз (впервые в 2005 г.) выносился на обсуждение депутатов РК. После встречи с корейскими депутатами родилась идея проведения одиночного пикета перед парлам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требованием ускорения принятия спецзакона. По словам Пак Сун Ок, подготовка к проведению пикета длилась больше двух месяцев. В проведении пикета большую помощь оказали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ИН(РК) и Общ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репатриантов.

По вопросу Спецзакона основное сообщение сделал советник РООСК Ким Хон Ди. Он рассказал о проведении одиночного пикета, его сообщение дополни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РООСКЖ Ким Вечери, которая также специально ездила в РК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пикета. Основные треб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ускорить принятие спецзакона, изменить условия репатриации (возраст и др.), разрешить двойное гражданство на условиях подписания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По третьему вопросу выступил член правления О Тин Ха. Было решено провести собрания по выборам делегатов на отчетно-выборную конференцию в местных отделениях до 26 ноября, а саму конференцию провести 14 декабря 2019 г.

Виктория Я

## Сахалински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предлагают выйти на внешний рынок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экспор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ходящий в соста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Фонда развит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предлагает островным бизнесменам поддержку в продвижении продукции и услуг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рынок.

В ноябре у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бизнес-мисс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идет формирование состава делегации.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участие можно, обратившись в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экспор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ема поездки — пищев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хлебобулочные и кондитерские изделия. В рамках бизнес-миссии сахалинским предприятиям подберут потенциаль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покупателей и организуют встречи в формате b2b (бизнес для бизнеса), которые в дальнейшем приведут к заключению экспортных контрактов.

Бизнесме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же приглашаю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о встрече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деловых кругов Китая и Южной Кореи. В декабре ожидается приезд на остров сразу двух

реверсных бизнес-миссий. Их состав будет напрямую зависеть от сахалинцев. Специалисты «Центра поддержки экспор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дберут островны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потенциальных партнеров, исходя из направлений деятельности участников этих встреч. Подать заявку и войти в состав реверсных бизнес-миссий сахалинск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могут уже сейчас. Это отлич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наладить отношения с деловыми партнерами за границей и, возможно, заключить экспортные контракты.

Рег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экспор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едлагает островны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целую систему поддержки в продвижении продукции и услуг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рынок. В центр можно обратиться за консультацией п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делового и эксперт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или за получением маркетингов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о выводу того или иного продукта в определенную страну. Можно также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обучающих семинарах, мастер-классах, круглых столах, выставках, ярмарках, бизнес-миссиях и других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бытиях.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Мун Чжэ И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едставит новую стратегию развития технологий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этом го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едставит новую стратегию развития технологий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Об этом заявил в понедельник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ыступая на конференции DEVIEW-Developer's View, посвященной программному обеспечению.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 это спутник человечества. Он призвал приложить усил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технологии стали двигателем социальных инноваций, призвав обратить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 проблему изменения структуры рабочих мест и этик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Участие президента в конференции является подтверждением намерен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выводу сектора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на уровень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Мун Чжэ Ин заявил, что власти окажут всестороннюю помощь в профильны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через создание и расширени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кафедр в вузах, а также проведение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мощь будет оказываться компаниям, работающим в этой сфере. Бюджет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включает 1,5 млрд долларов на развитие сферы данных, сети 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Это на 50% больше, чем в текущем году.

## КНДР предостерегла США от попыток затянуть переговоры

США серьезно ошибаются, надеясь мирно преодолеть конец нынешнего года путем использования личны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воим президентом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и председателем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ом.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за мир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Ким Ён Чхоль. Он отметил, что «друже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главами КНДР и США не являются гарантией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обострения 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отношений». По словам Ким Ён Чхоля, США неверно трактуют терпение КНДР, продолжая вести враждебную политику.

Ким Ён Чхоль также критично отозвался по поводу того, что на сессии Генер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и ООН американская сторона вновь затрагивал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олной и подконтрольн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НДР. Он осудил призыв Вашингтона к полн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прозвучавший на заседании Генер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и ООН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Это подтверждает «намерение США изолировать и подавить КНДР более коварным и порочным способом, чем раньше» вместо того, чтобы изменить подход к диалогу,- добавил Ким Ён Чхоль.

## Сеул предложил Пхеньяну обсудить судьбу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в горах Кымганса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едложил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е провести рабочие переговоры по поводу озвученных председателем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ом планов сноса зданий и сооружений (будут демонтированы порт Косон, отели «Хэгымган» и «Кымгансан», а также другие объекты), построенных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в горах Кымгансан.

Как сообщил на брифинге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Ли Сан Ми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компания Hyundai Asan направили послание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содержанием через межкорейский пункт оперативной связи в Кэсоне. В послании не указываются место и время предлагаемых переговоров.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намерена в ходе рабочих контактов затронуть все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в горах Кымгансан.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ещали сохранить позицию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решения всех проблем в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путем диалога. Ранее Север предлагал обсудить снос зданий и сооружений в горах Кымгансан в письменной форме.

## Бантхан Сонёндан (BTS) установила рекорд Книги Гиннеса

Музыкальный коллектив Бантхан Сонёндан (BTS) установил рекорд Книги Гиннеса по количеству подписчиков в приложении «Тик Ток» (TikTok). Более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подписались на аккаунт южнокорейских артистов спустя 3 часа 31 минуту после его открытия. По прошествии 59 часов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подписчиков составило 3 млн пользователей.

Другой рекорд был установлен на платформе YouTube. Музыкальный клип «Boy With Luv» за сутки набрал 7 млн 600 тыс. просмотров. Альбом «MAP OF THE SOUL: PERSONA»,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го вошел данный хит, стал самым продаваемым музыкальным альбомом в Корее в июле этого года. Всего было продано почти 4 млн экземпляров.

(RKI)

## На выставке в Сеуле показали оружие будущего

В пригороде Сеула Соннам 20 октября завершил работу один из крупнейших оборонных салонов региона - Сеульская аэрокосмическая и оборонная выставка ADEX 2019.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на военном аэродроме Сеула.

По данным организаторов, нынешний ADEX стал самым крупным за всю историю своего проведения.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430 компаний из 34 стран мира, которые разместили продукцию и технику на 1730 стендах и секциях.

Вероятно, сказало то, что Корея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е планирует крупных тендеров на закупку вооружений за рубежом, либо будущие поставщики уже определены, а потому иностранное присутствие в этом году было достаточно скромное.

Но это с лихвой компенсировали сами корейцы, которые вот уже который год активно продвигают свою продукцию на зарубежный рынок, а также делают ставку не на импорт, а на создание собственных образцов.

Если брать критерий, который часто применяют для автосалонов, оценивая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ость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количеству показанных новинок, то ADEX 2019 безусловно стал в этом плане особенным. Был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ны либо уже готовые образцы новых вооружений, либо их модели с подробным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и,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понять, чем будет вооружена арм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будущем.

В частности, впервые была показана полноценная модель истребителя следу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KF-X, который Корея сейчас создает своими силами, отдав контракт компании Korea Aerospace Industries. Модель KF-X была представлена в том числе в масштабе 1:1 на открытой площадке выставки.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2021 году появится опытный образец, а своими истребителями Корея сможет начать вооружать войска с 2026 года.

Корейцы с большой гордостью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и истребители-"невидимки" пятого поколения F-35 A, которые начали поступать в ВВС РК с этого года. Всего у США Сеул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перевооружения ВВС закупил 40 штук, не исключив возможности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закупок.

Среди других образцов "оружия будущего" - прототип корейского танка следу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который создает компания Hyundai Rotem. Этот танк будет вооружен 130-мм пушкой, экипаж будет состоять из двух человек. При весе 30-40 тонн он сможет развивать скорость до 80 км/ч, проезжая до 500 км. Возможно, будет предусмотрено движение без экипажа - в автономном режиме путем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контроля. Впрочем, это пока лишь планы, готовой работающей модели "корейского танка следу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пока нет.

Компания Hyundai Rotem также производит основные танки сухопутных войск РК K2 и K1 A1. Был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на интересная беспилотная бронированная машина Shepra, которой можно управлять, либо дистанционно задать автономный режим движения. Shepra в автономном режиме может постоянно следовать как на привязи за оператором, к которому прикреплен.

Вообще автоматизация, роботы, беспилотные модел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 прочих соврем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 вооружениях - еще одна особенность, которая заметна на выставке вооружений ADEX 2019. Корейцы представили несколько беспилотных моделей вертолетов, БПЛА, машин-роботов, которые могут выполнять как боевые задачи по уничтожению противника, так и осуществлять поддержку и вести техническую работу типа разминирования, доставки грузов,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раненых и других. Здесь тоже у Кореи есть неплохие заделы.

Не было обойдено вниманием и стрелковое оружие. К стати, стенды со стрелковым оружием, а также истребители пользовались среди посетителей самой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Как дети, которых было на выставке очень много, так и их родители стремились подержать новые пистолеты и автоматические винтовки, в том числе те, которые пока еще лишь испытываются. В этом разделе можно отметить новые образцы стрелкового оружия K 15 и STC-16 со спецпатроном, а также интересный пистолет для полиции, пуля у которого обладает пониженной поражающей силой, что актуально с учетом

специфики работы стражей порядка среди граждан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По словам компании S&T, которая производит в Корее стрелковое оружие, новый пистолет будет принят на вооружение местной полиции уже в 2021 году.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ведут активные разработки в сфере создания снаряжения и формы для пехоты, представив свои образцы на выставке. Hanwha Corporation показала целые комплексы экипировки, которые снаряжены специальными компьютерными комплексами, датчиками и прочей "начинкой",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бойцам одн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немедленно обмениваться информацией, а командиром знать о состоянии и местоположении каждого военнослужащего, имея возможность также и посмотреть через камеры, которые имеются в шлеме солдата или офицера.

Тут же было представлено значите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тех образцов, которые Южная Корея предлагает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рынок и которые, насколько можно судить по новостям, уже часто успешно конкурируют с именитыми концернами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Речь идет о 155-мм САУ K-9, которая высоко оценивается в том числе зарубежными экспертами, несколько моделей БРТ и бронированных машин поддержки, легкие ударные самолеты T-50, зенитные ракетно-пушечные комплексы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В иностранном разделе доминировали в основном американские, немецкие, французские концерны, а также производители вооружений из Израиля. Европейские и израильские компании хорошо известны корейской армии и уже успели несколько раз забрать у американцев контракты на поставку оружия. США до сих пор считают южнокорейский рынок "своим", хотя другие страны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начали теснить "главного союзника" корейцев.

Из российских компаний на выставке удалось увидеть достаточно большой стенд холдинга "Вертолеты России", который предлагает Южной Корее модернизировать Ka-32.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у корейцев работает более полусотни российских машин, и они зарекомендовали себя с хорошей стороны. Большинство корейских Ka-32 используются для тушения лесных пожаров и как транспортные вертолеты, но часть машин состоят на вооружени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С.

Правда,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корейцы начали производить свой вертолет "Сурион", который активно продвигают на иностранные рынки. Производитель "Сурионов" - все та же компания KAI, которая делает и корейский "истребитель будущего" KF-X - представила и несколько экспортных вариантов вертолетов, а также активно продвигает их у себя в стране. Так что за корейский вертолетный рынок идет активная борьба, в которой участвуют и россияне.

На ADEX 2019 Корея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а и свои космические амбиции. Был показан созданный KAI 75-тонный ракетный двигатель. Корея сейчас строит собственную ракету-носитель KSLV-II, у которой три ступени. На выставке был макет KSLV-II, а вот двигатель привезли настоящий. У трехступенчатой ракеты в первой ступени будет четыре таких двигателя, а во второй - один. С их помощью корейцы намерены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чать выводить спутники на орбиту. Несмотря на скептические замечания этот двигатель уже прошел успешные испытания на земле, почему его скорее всего и показали на этой выставке.

Если отвлечься от описания "железок", то выставка ADEX 2019 стала местом, куда корейцы и иностранные гости приходили целыми семьями, чтобы отдохнуть. У детишек большой восторг вызывала возможность повертеть в руках настоящее оружие, посидеть за штурвалом истребителя и с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ся с пилотами или танкистами. Тут же действовали разные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секции, где можно было собрать модель понравившегося вида вооружений, сделать своими руками значок на военную тематику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В одном из больших павильонов несколько команд устроили чемпионат по футболу среди сборных дронов. Это оказалось весьма увлекательным зрелищем, где кипели нешуточные страсти. Кроме того, прошли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спецназа, военного оркестра, авиашоу различных видов самолетов, включая пилотажные группы ВВС РК Black Eagles, а также прыжки парашютистов.

Олег Кирьянов(Сеул, РФ)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570 руб. 9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родукцию тре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мпаний представили на выставке в Японии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ая выставка Hokkaido Agri-food Project работала в Саппоро на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ой площадке «Axes Sapporo» два дня. Все это время на стенд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о многолюдно. Жители Хоккайдо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робовали продукцию остров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и отмечали ее высокое качество.

— Свою продукцию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или три сахалинских предприятия: «САКО», «Северная звезда» и «БИНОМ». Надеемся, что участие в экспозиции поможет нашим компаниям найти партнеров на японском рынке,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Все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на выставке продукты, прежде чем попасть на стенд, прошли строгие процедуры сертификации. За два дня экспозиц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етили свыше 600 гостей, столько же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дегустаций.

ООО «Сахалинское кондитерское общество» («САКО») в Японию привезло широкий ассортимент кондитерских изделий: мармелад, зефир, печенье, сахарную пастилу.

— Наша продукция очень нравится японскому потребителю. Каждый посетитель отмечал — «умай» (по-японски «Вкусно!»). Нас, конечно, это привело в восторг, мы не ожидали такого интереса. Приходили люди, которым о нашей продукции рассказали их знакомые, посетившие стенд ранее. Надеемся выйти на заключение договоров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японскими партнерами, — поделилась коммерческий директор предприятия Антонина Буркова.

По вкусу японским посетителям пришлось и сахалинское пиво. Его на соседний остров доставила компания «Северная звезда». На выставке гостям предлагали марку «Стрелецкое». Это наиболее крепкий пенный напиток, который обладает насыщенным солодовым вкусом и хмелевой горечью.

— Мимо нашего стенда редко кто проходит. Продукцию пробуют, хвалят. Наш напиток, конечно, непривычен для японцев — он сделан на пшеничной основе, а они привыкли к пенному на рисе. Рассчитываем, что у нас появится новый рынок сбыта, — отметил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маркетинга предприятия Роман Ерохин. — На выставке мы наметили и дальнейший путь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поставок продукции на японский рынок. Для этого надо будет решить ряд вопросов: логистики, упаковки (пиво и напитки в Японии употребляют в основном в алюминиевой таре небольшого объема), а также преодолеть различны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барьеры.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ая группа «БИНОМ» представила на выставке продукцию из морской капусты. Это шинкованная сушеная капуста, сушеные слоевища водорослей, витаминный порошок, получаемый из ламинарии.

Также на выставке японские гости смогл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туристическими объектам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 В основном, нас спрашивали, как добраться от Саппоро до Сахалина, получить визу. Интересовались горнолыжным курортом «Горный воздух»,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ми турами, рыбалкой. Особенно гостей впечатлил палтус — рыба, которая обитает в морских глубинах у острова Итуруп. Большим спросом у японской аудитории пользовалась полиграфия с горнолыжной тематикой, — рассказал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ТИЦ Янина Дубенчук.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ая выставка Hokkaido Agri-food Project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крупнейших мероприятий Хоккайдо.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ляют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напитки, сладости, приправы, функциональное питание. Кроме этого на стендах экспозиции мож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оборудованием,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ми разработка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ыставка организована для содействия дальнейшему развитию и укреплению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Японией, продвижения экспортной продукции российских предприятий и организаций на рынки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 Первый после возвращения рейс «Аэрофлота» связал Москву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амолет 27 октября вылетел из Шереметьево и 28 октября приземлилс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Возвращения крупнейшего авиаперевозчика России на остров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ранее добился глава региона.

С переходом на зимнее расписание «Аэрофлот» возобновил ежедневный рейс по маршруту Москва —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Москва. Самолет отправляется из Москвы в 21:00 и в 13:25 прибыва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обрат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ылет — в 15:45, прибытие — в 16:55.

При этом сохраняется ежедневный рейс между областным центром и столицей, который совершает дочерняя авиакомпания «Росс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о конца мая самолеты будут летать два раза в день, а не один, как это было в прошлые годы. А в период летней навигации будет совершаться три ежедневных рейса вместо двух.

— Интенсивность полетов увеличивается в полтора — два раза. Вместимость самолетов «Аэрофлота» — около 300 пассажиров. Потребность в билетах высокая не

только летом, когда все летят в отпуск, но и зимой. Люди выезжают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 на зимние каникулы, в командировки,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иколай Давыдов.

«Плоские тарифы» просубсидированы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в этом году полет бортом «Аэрофлота» обходится в 15 тысяч рублей в одну сторону, 25 тысяч — туда и обратн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утвердят «плоские тарифы» на 2020 год, и билеты поступят в продажу.

— Улетали в гости к друзьям «Россией», вернулись «Аэрофлотом». Первая компания тоже неплоха, но «Аэрофлот» — это другой уровень комфорта. Очень рады долгожданному возвращению, — поделилась южносахалинка Наталья Красавина.

Кстати, крупнейший авиаперевозчик страны совершил первый рейс на Сахалин спустя ровно год после своего ухода с островного рынка. О возобновлении полетов «Аэрофлот» объявил в августе — после переговоров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Президентом и Председател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и, руководством федерально-го Минтранса и авиакомпаниями.

## Всероссийский молодежный патриотический слет пройде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20 году

Содействие в его проведении окаже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акое поручение дал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 итогам встречи с общественниками, где обсуждалось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л, что перечень поручений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имеет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жителей все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конечн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Наша область упоминается в этом документе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Символично, что в год 75-летия Великой Победы у нас пройдет Всероссийский молодежный патриотический слет. Мы должны еще раз напомнить всему миру, что именн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завершилась Вторая мировая война. Война, по итогам которой и была образован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ее современных границах, — сказ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атриотический слет состоится в начале сентября 2020 года. Ожидается, что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ме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н прилетит на Сахалин после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перечне поручений отражены десятки актуальных дл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вопросов. Это по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развитие спорта, волонтерского движения, программа переселени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расширение мер поддержки дет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борьба с наркоманией. Обширный блок посвящен защите природы, сохранению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продвижению туризм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семьям с детьми. Дано поручение проработать вопрос создания инженерной и коммун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ах, которые получают многодетные и участники программ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гектар».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использовать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на газификацию жилья и подключение к сетям.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е №2 заработало «Окно доверия»

Любой посетитель может записать видеозапись и поделиться своим мнением о работе медицинского учреждения.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егодня протестировал новую систему для обратной связи с пациентами.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рядом со входными дверями, установили две видеокамеры. Нажав на кнопку, можно оставить жалобу, предложение или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пись ведется 1 минуту.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ответ, следует назвать свое полное имя и номер телефона. Обращение рассматривает руководство медучреждений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здрава.

— Второй поликлинике досталась почетная роль первооткрывателя.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Окна доверия» появятся в 36 лечеб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по всей области, — рас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Услышать о существующей проблеме — это самое главное. Чем скорее руководство медучреждений узнает о том, что волнует пациентов, тем скорее сможет исправить острые моменты.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тьяна Югай пришла сдать анализы и обратила внимание на нововведение.

— Это очень удобно. Как будто рассказываешь невидимому собеседнику о плохом и хорошем. Я уже 35 лет хожу во вторую поликлинику.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гораздо лучше стало. Сейчас кровь приходишь сдавать ко времени, очередей нет. Да и к узким специалистам теперь проще попасть. Хочется верить, что люди меньше болеть станут, — поделилась пациентка.

Главный врач медучреждения Мила Тен считает, что «Окно доверия» поможет наладить диалог между врачами и пациентами. Отметим, что поликлиника №2 первой на Сахалине начала работать по принципам «бережли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Здесь модернизировали регистратуру, создали два кабинета неотложной помощи, ввели электронную запись на сдачу анализов. В

результате — сократились очереди, исчезли барьеры в общении между медиками и посетителями.

Напомним, что эффектив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обратной связи с пациентами является также горячая линия «1-300». Она была запущен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1 апрел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о этому номеру можно записаться на прием, оставить жалобы и предложения, а также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услугой «спросить онколог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службу поступило почти 200 тысяч звонков, из них — 14 тысяч обращений.

## Сахалин первым в России запустит мед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видеосвязи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новая медицинская услуга заработает во всех поликлиниках региона. Островитяне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ею с 1 ноября этого года. Пациентам станут доступны бесплатные онлайн-консультации более 20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из Москвы.

— Для нас очень важно решить кадровую проблему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этом году мы привлекли на работу в область более 200 врачей. Еще примерно столько же нам не хватает. Возможности телемедицины помогут нам уже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существенно сократить потребность в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ах,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Я подчеркиваю,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смогут получать полноценн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Их будут давать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врачи, кандидаты и доктора медицинских наук.

Первые онлайн-консультации в тестовом режиме прошли в четвертой поликлини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х посетили пациенты, которым требовалась помощь специалистов самого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Теперь пообщаться с такими врачами островитяне могут абсолютно бесплатно, не выезжая за пределы региона. Причем услуга будет доступна везде — от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а до Курилы.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новой возможностью воспользовалась островитянка, у которой уже долгое время болит спина. На Сахалине возникли сложности с установкой точного диагноза и тактикой лечения. Наконец появился выход — женщине помогла консультация с высококлассным московским специалистом.

— Считаю, что это очень правильная и хорошая идея. У нас не всегда можно вовремя попасть к нужному врачу. К тому же, в крупных городах живет очень много людей, а значит, у медиков больше опыта, — отметила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Таких случаев, когда нужна помощь лучших врачей страны, на острове немало. Поэтому, услуга будет востребованной.

Островитяне пообщались с московскими нейрохирургом, нефрологом и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ом. Причем специалисты были готовы к встрече с пациентами — через интернет им доступны результаты анализов и история болезни сахалинцев.

— Мы и раньше консультировали пациентов из других городов, но в таком масштабе это будет происходить впервые. Думаем, всё получится. Конструктивный настрой чувствуется с обеих сторон,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ный врач Первого клиническ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центра Александр Лисин.

Получить онлайн-консультацию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смогут по назначению терапевта. К услугам специалистов с материка будут прибегать при нехватке талонов на прием к местным врачам.

— Бывают ситуации, когда островные медики не в силах помочь пациентам. Не хватает квалификации, опыта. Тогда лечащий врач также будет записывать на прием к узкому специалисту по видеосвязи,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здрава Владимир Ющук. —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мы полностью заканчиваем подготовку наших медучреждений к применению этой технологии. Важный момент — видеосвязь проходит по закрытым каналам, поэтому личные данные людей будут надежно защищены.

Напомним, в этом году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нициировал в островн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масштабные изменения. На переоснащение островных медучреждений выделили 2,7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Было приобретено 225 единиц новейшей техники. На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медучреждений в этом году было выделено 1,2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что позволило обновить внешний вид более 20 больниц и поликлиник.

Кроме того, в 2019-м выросли зарплаты врачей и среднего медперсонала в поликлиниках. Вдвое увеличен целевой набор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специалистов выплачиваются самые высокие подъемные в стране — от 1,45 до 2,6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район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Медикам компенсируют до 25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аренду квартиры. В ближайшие 5 лет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роить 65 новых объект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оследнее нововведение приведет к тому, что в области должна быть серьезно снижена острота проблемы нехватки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видеосвязи будут оказывать в 36 поликлиниках област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한국으로의 동물/축산물/식물 반입이 엄격해졌다

## 올해 6월 1일부터 과태료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이미 홍보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한국 입국 시 생고기 및 햄, 소시지, 육포와 같은 관련 제품의 반입이 제한하고 있다.

특히 한국으로의 동물/축산물/식물 반입이 엄격해진 상황에서 휴대한 검역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는 최고 100만원까지이던 과태료가 올해 6월 1일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반입이 제한된 물품으로는 동물과 동물 생산품, 식육과 육가공품, 알과 알 가공품, 육가공품 등이 있다.

동물에는 개, 고양이, 애완 조류 등이 포함되고, 동물의 생산품으로는 녹용, 뼈, 깃털 등이 해당된다. 식육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모든 종류의 날고기는 물론, 고기로 만든 소시지, 햄, 육포, 통조림까지 고기가 조금이라도 포함된 가공품도 검역대상이 된다. 또한 달걀, 조류알, 난백, 난분 등의 알 및 알 가공품과 우유, 치즈, 버터 등의 육가공품도 제한된다. 추가로 애완동물사료나 영양제 등도 검역 대상이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관계자에 따르면 사할린에서는 주로 훈제나 염장 생선류, 대게, 연어알, 조개류 등의 수산물과 치즈나 햄 같은 유제품과 육가공품의 반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패류, 갑각류와 같은 수산물의 경우, 살아있지 않고 가열하거나 건조한 경우에는 검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복류나 굴, 새우류는 냉동/냉장이더라도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추가로, 과일과 채소, 견과류, 한약재 등의 모든 식물류와 흙이 묻은 묘목류도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qia.go.kr)에 동식물 검역에 대한 러시아어 안내문이 게재되어 있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에 비치된 안내문에도 주요 공항 및 항만 문의처가 안내되어 있으니, 입국 예정인 공항 등의 문의처에 직접 문의하면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출장소 측은 "직접 문의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저희 출장소로 연락주시면, 문의에 도움 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본사 기자)

[우리말로 깨닫다]

# 바람의 위로, 대금의 위로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이소라 씨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울컥하여 눈물이 주르륵 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詩)로도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바람이 형클어진 머리를 스치고, 외로운 마음에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람이 위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 조현웅(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때론 따뜻한 봄바람이, 때론 더운 별을 식히는 한여름 밤의 바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나뭇잎을 바스락거리는 가을바람도 때로 외로운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때론 칼바람 같이 쨍쨍거리는 겨울바람도 상처 난 가슴에 위로가 됩니다. 바람은 기분 좋은 위로이기도 하고 슬픔을 이기게 하는 위로이기도 합니다. 바람은 내 속에 들어와 기운이 됩니다. 기가 흐른다는 말이 내 속에 담긴 바람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바람은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숨'입니다. 이 바람은 안도의 한숨이 되기도 하지만 걱정의 한숨이기도 합니다. '한'이라는 말이 크다는 뜻이니 말 그대로 크게 바람을 내보내는 겁니다. 어느 방향이건 간에 한숨을 쉬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다른 바람으로는 '회파람'이 있습니다. 회파람은 바람이 돌아나가는 겁니다. '회'에는 '돌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졌다, 휘몰다'의 느낌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모은 입술 사이로 바람이 흘러나와 음악이 됩니다. 예술이 됩니다. 회파람은 기분이 좋을 때만 나오는 소리여서 늘 반갑습니다. 내 속에 있는 편안함과 즐거움이 바람 소리가 되었습니니다.

입에서 나오는 바람 중에서 온기(溫氣)가 있는 것은 '입김'입니다. 입김은 여러 장면에서 쓰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 손을 잡고 호호 불어주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금세 얼어붙은 손과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때로 입김은 뜨거운 것을 식히기도 합니다. 뜨거운 음식을 호호 불어주어 먹기 알맞은 온도로 바꾸어 줍니다. 음식의 온도는 내려갔는데 감정의 온도는 올라갔습니다. 사랑의 바람입니다.

입김이 감정의 온도가 되는 순간은 상처에 약을 바르고 불어줄 때입니다. 약을 바르고 상처가 덧나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 세지도 약하지도 않은 바람을 '호' 하고 불니다. 금방 상처가 아물 거라고 위로의 말도 건네주십니다. 상처가 아리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납니다. 감정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상처도 아물고 흉터도 남지 않기 바랍니다. 치유의 바람입니다.

저는 요즘 대금(大琴)을 배우고 있습니다. 대금은 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아가의 상처에 입김을 부는 것처럼 바람을 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대금은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울한 마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마도 대금 소리가 상처를 어루만지는 바람소리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금은 소리를 듣는 것뿐 아니라 소리를 내면서도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아이의 상처가 금방 낫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에도 위로가 있습니다. 아이가 낫는다면 부모에게도 더 큰 위로가 될 겁니다.

대금을 불 때 호흡을 가만히 살펴보면 단전호흡(丹田呼吸)과 닮아있습니다. 길게 소리를 낼 때 단전에 힘을 주게 됩니다. 단전의 힘으로 대금을 부는 겁니다. 민요를 배울 때도 단전으로 노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전호흡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마음에도 깊은 위로가 됩니다. 대금을 부는 것만으로도 단전호흡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가의 상처에 입김을 부는 마음으로 대금을 분다면 듣는 이에게도 부는 이에게도 치유의 시간이 될 겁니다. 대금은 바람이 들려주는 위로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19년 6월 1일부터,**  
휴대한 동물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 돼지고기 및 관련 제품  
· 1회(500만원) → 2회(750만원) → 3회(1,000만원)
-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 이외 제품 및 기타 국가  
· 1회(100만원) → 2회(300만원) → 3회(500만원)

※ 외국인의 경우 입국금지, 체류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육류 및 햄·소시지·육포**와 같은 관련 제품은 **반입이 제한**되며, 부득이하게 소지하신 경우 **여행자휴대물신고서**에 **체크**하고 공항·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Информация карантинного надзора животных и растений**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проникновения насекомых-вредителей и эпидемии крупногоратого скота в аэропорту и портах страны карантинная служба проводит госнадзор на ввоз домашних животных, растений и продуктов

**Строгое ограничение на ввоз домашних животных, растений, продуктов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из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 Ввоз продукции разрешен при одобрении карантинного надзора

В случае не заполнения декларации при въезде о таких видах продукции как домашних животных, продуктов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и растений **налагается штраф в размере 5.000.000 корейских вон**

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фитосанитарного карантинного контроля продуктов сельского,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www.qia.go.kr](http://www.qia.go.kr)

**Ограничение на ввоз определенных видов продукции (карантинный надзор)**

**Животные и продукты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 ▶ Животные: собака, кошка, другие виды домашних животных и т.д.
- ▶ Мясо и продукты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говядина, свинина, курятина, сосиски, ветчина, валеное мясо, маринованные продукты, вареное мясо и т.д.
- ▶ Продукты жив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панты, кости, живая птица и т.д.
- ▶ Кисло-молочные продукты: молоко, сыр, масло и т.д.
- ▶ Яйца и яичепродукты: куриное яйцо, яйца других классов птиц, яичный белок, яичный порошок

**Растения**

- ▶ Растения: овощи, фрукты, семена, саженцы, цветы, орехи, лекарственные растения и т.д.
- ▶ Вредные организмы: живые насекомые, болезнетворные бактерии, почва и т.д.

Необходимо заявить в карантинную службу на ввоз животных, продуктов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растений, так же в случае почтовых отправок.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карантинной службы

Аэропорт Инчон - животные 032.740.2660 / растения 032.740.2077  
Аэропорт Кимпо - животные 02.2664.2601 / растения 02.2664.3844  
Аэропорт Чечжу - животные 064.746.0761 / растения 064.746.2460  
Порт Инчон - животные 032.722.8221 / растения 032.722.8243  
Порт Пусан - животные 051.600.0408 / растения 051.600.5804  
Порт Кунсан - животные 063.460.9430 / растения 063.460.9450

# 이모저모

(2면의 계속)

이 행사는 сахалин 예술전문대 재즈무대 오케스트라가 프로그램을 해설할 예정인데 음악인들은 종교예식의 전형적인 재즈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예를 들면 듀크 엘링톤이 녹음한 1942년 '씨 잼 블루스' 혹은 핑크 '모아닌'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들은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다양한 재즈 스타일과 리듬으로 편곡된 동요들을 연주할 예정이다. 이 콘서트는 '잼 세션'이라는 아동들과 음악인들이 함께 만들어낸 즉흥 악기 연주로 끝낼 예정이라고 예술전문대학측이 전했다. 콘서트는 45분간 진행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체호브 거리 6번지에서 참가자들을 기다린다.  
문의전화는 43-42-88.

## Студенты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расскажут юным сахалинцам о джазе

2 ноября в 15:00 в Сахалинском колледже искусств состоится интерактивный концерт «Джаз — детям» музыкаль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проекта «Классика — детям». Программа рассчитана на школьников младших классов и детей старше 6 лет. Вход свободный.

В легкой игровой манере ребята смогут узнать названия инструментов,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особенности джазовой ритмик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музыкальных

викторинах и конкурсах. Дети узнают, что такое синкопа, и научиться ее стучать, когда будут хлопать в ладоши. На концерте можно будет топтать и хлопать, танцевать, шуметь, задавать вопросы. Не обойдется и без совместных импровизаций и пения.

Иллюстрировать программу будет учебный эстрадно-джазовый оркестр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Музыканты подготовили программу, которая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культовые джазовые стандарты, например C Jam Blues 1942 года, записанный Дюком Эллингтоном, или фанковый Moanin. А также прозвучат и детские песни в авторских джазовых аранжировках в разных стилях и ритмах, которые студенты специально подготовили для детей. Закончится концерт настоящим джем-сейшеном, совместным музицированием детей и музыкантов, сообщает Сахалинский колледж искусств.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концерта — 45 минут.  
Гостей ждут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ица Чехова, 6.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43-42-88.

## 'сахалин 공공 가이드' 기획

### 러시아 올해의 자원봉사자 경연 결승에 출전

сахалин주 일반과학도서관의 기획 'сахалин 공공 가이드'가 '2019 올해의 러시아 자원 봉사자' 전국 기획 공모전의 최종 경연에 나섰다. 러시아 전역에서 제출된 약 2만8천여 개의 기획 중 결승에 오른 것은 190여 개 가운데 сахалин 지역 일반과학 도서관의 'сахалин 공공 가이드' 기획도 포함되었다.

сахалин 지역의 관광 산업의 잠재력 발굴을 목표로 실시한 이 기획은 1년간 참가자들이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시의 역사적 장소와 관련된 보행 투어를 대중화 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러시아 올해의 자원봉사자' 경연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에서 수만 건의 기획을 모아온 최고의 자원봉사 기획 공모전이다.

## Проект «Народ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гид» вышел в финал конкурса «Доброволец года»

Проект «Народ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гид» вышел в финал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Доброволец России-2019». Из более чем 28 тысяч присланных на конкурс проектов со всей России в финал вышли только 190 и среди них — проект «Народ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гид»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В течение года участниками проекта проделана большая плодотворная работа по популяризации пеших экскурсионных маршрутов, связанных с историческими местами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 целью развития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броволец России» —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лучших волонтерских инициатив,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т с 2010 года и за это время собрал десятки тысяч проектов со всей страны. Лучшие из них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ю идею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сообщили в библиотеке.

(сахалин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EDA.SAKH.COM**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ПРИСОЕДИНЯЙТЕСЬ!**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вь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

ЗАГРУЗИТЕ НА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реклама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i>Реклама</i></p>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